

2011.8.18~8.25(7박8일)

국제교류 추진 방문 결과 보고

／ ◇ 자매결연 :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 ◇ 초청행사 : 골드코스트시(호주군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



가 평 군
(교 육 협 력 과)

호주군 한국전 참전기념 초청행사 및 자매결연 체결 방문 결과 보고

■ 목 적

- 스트라스필시(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와 자매결연체결(협정서 조인)
 - 국제교류를 통한 행정, 교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상생 협력방안 모색
 - 스트라스필드시와 시드니 교민사회 방문, 격려
- 골드코스트시(호주 퀸즈랜드주)
 -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 및 보은행사참석
 - 호주군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표시와 가평석 발송 경위 설명
 - 6.25 전쟁 후 폐허 속에서 성장 발전한 가평군을 참전용사와 후손 그리고 퀸즈랜드주 주민들에게 홍보
 - 골드코스트시 안락데이 연례행사의 하나인 『가평의 날』 협조권 협의

■ 방문개요

- 기 간 : 2011. 8. 18 ~ 8. 25(7박8일간)
- 방 문 국 :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와 골드코스트시
- 방 문 단 : 4명
 - 단 장 : 부군수
 - 단 원 : 교육협력과장, 군의원1, 실무자1
 - 통 역 : 전문통역 현지 별도섭외(1명)

○ 내 용

- 가평군-스트라스필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 스트라스필드시 주요주택지역과 산업시설 견학
- 스트라스필드시 행정, 교육, 관광,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방안 협의
- 스트라스필드시 한인타운방문, 교민격려
- 시드니 무어파크 한국전참전기념비 참배.
- 골드코스트호주군한국참전기념비 건립 전야제, 제막식, 보은행사참석
- 퀸즈랜드주 가평전투 참가 호주군 참전용사 위문

■ 총 평(방문성과)

- 우리군과 호주의 대표적 교민 밀집지역인 스트라스필드시의 자매결연 체결은 양 도시 뿐 만아니라 한호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우호 증진과 친선관계 형성에 큰도움을 줘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국가적 행사로 승격 자매결연 모범 사례로 뽑음
-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미국 시더시에 이어 호주에 또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군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 마련
- 이번 자매결연체결을 통해 호주 스트라스필드 교민과 시드니 교민들에게 고국의 소중함과 향수 그리고 자긍심을 일깨워준 계기가 됨
- 한국전 참전 호주군의 대표적 전투인 가평전투지역을 보유한 우리군은 호주 한국전참전재향군인회와 친선우호관계 강화 및 관계정립 계기 마련

< 잘 된 점 >

○ 스트라스필드시 자매결연(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 스트라스필드시 당국의 완벽한 준비와 한국계 권기범의원 의 사전홍보로 15개 이상의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시관계자, 많은 한인교민들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조인식에 참석하였고 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엄숙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자매결연조인식 거행
- 골드코스트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행사에 맞춰 스트라스필드 자매결연 조인식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방문횟수와 방문기간을 줄이고 최소 인원(4명)으로 방문단을 구성, 일정을 소화해 냄으로서 경비절감을 통한 공무국외여행의 모범을 보임

○ 골드코스트시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제막식(호주 퀸즈랜드주)

- 가평전투 60주년 해에 우리군에서 보낸 가평석(3점)이 퀸즈랜드주 한국전 참전비 건립에 사용, 제막식에 참석한 700여명의 호주군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가평석을 가장 값진 선물로 여기고 있었으며 우리군 대표에게 감사패까지 수여
- 가평전투를 기리기 위해 퀸즈랜드주 호주군 한국전참전용사들과 골드코스트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안락데이 전 날 행하여온 『가평데이』 행사에 대해 가평군의 대표가 시의 적절하게 감사의 뜻을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노고를 위로, 앞으로도 골드코스트 『가평데이』 행사를 통하여 호주 전체에 가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틀마련

<보완 및 개선할 점>

- 가평전투를 기리기 위해 퀸즈랜드주 호주군 한국전참전용사들과 골드코스트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열정을 갖고 매년 안작데이 전 날 『가평데이』 행사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군 차원의 관심과 지원 부족
- 스트라스필드와 자매결연 협정까지 막후에서 협조해 주신 스트라스필드시 한국계 권기범의원을 가평군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현지 스트라스필드시 당국과 스트라스필드 한국교민사회에 가교 역할과 가평군 홍보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 대두
- 글로벌네트워크 구축과 세계화 군정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군내 필수 국제화 전문 인력 필요

<교류분야 실무협의>

- 스트라스필드시가 지속 가능성분야(생태,환경,경제)에서 2010년도 뉴사우스웨일즈 115개 자치시 중에서 1위의 평가를 받은 것과 우리군 비전인 『에코피아가평』의 공통점이 많아 앞으로 정책적 교류를 하기로 논의
- 스트라스필드시에서는 공무원 교환근무, 스프링스페어 축제에 가평군 참가제의, 스트라스필드시장 가평군 답방 건의(2012. 5월)
- 우리군에서는 행정, 교육, 관광, 문화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제안함. 특히 단기적으로 가평군청소년의 스트라스필드 어학 연수와 스트라스필드 청소년들의 가평에서 한국전 참전비순례와 한국 문화체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행사와 스트라스필드의 스프링스페어 축제에 각각 대표단 파견 제안
중.장기적으로 공무원교환근무, 각종 정책적 교류 제안 및 스트라스필드시장 가평 방문 긍정적 검토
- 지방정부간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교류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양도시간 공동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함

<향후 검토 · 추진사항>

- 각 실·과·소 교류 희망 사업 제안 받아 추후 검토 보고
- 스프링스페어 축제시 가평군 부스 제공에 따른 가평군 홍보

■ 주요 방문 행사

<스트라스필드시 자매결연 >

○ 가평군-스트라스필드시간 자매결연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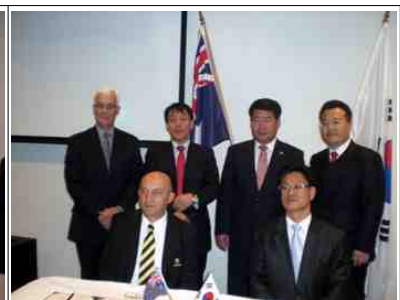
- 일 시 : 2011. 08. 22(월) 11:00
- 장 소 : 스트라스필드시 공공도서관(1층) 본회의장
- 참석대상 : 가평부군수외 3명, 스트라스필드토니마룬시장외
직원 및 시의원, 시드니총영사관 김진수 총영사와 3명,
스트라스필드 한인회 대표 및 교민들, 15개 언론사 기자,
참전용사 등
- 조인식순서 :
 - 개회사 및 참석자소개 프리젠테이션(에코피아가평)
 - 시장 환영사, 군수답사 시드니총영사 축사, 협정서서명,
기념품 교환, 기념사진 촬영 등



자매결연 협정서 서명



협약서 교환



자매결연기념사진



시장환영사



부군수답사



총영사축사

○ 기념품 교환

- 도자기증정(가평군) ⇔ 액자증정(스트라스필드시)

		
우리군기념품(대접시) 증정	스트라스필드(액자)기념품증정	기념품교환

○ 가평군-스트라스필드시간 실무협의 【 2011.08.22.(월)12:30】

- 참석대상: 군수, 시장, 시의원, 관계공무원, 시드니영사관직원,
- 장 소 : 스트라스프라자 레스토랑 대삼원
- 내 용 : 양도시간 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오찬겸 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오찬겸 교류협력사업협의	부군수와 시장

○ 스트라스필드시 한인타운방문 【 2011.08. 23.(화) 14:00】

- 참석대상 : 부군수와 3명, 스트라스필드시장 , 시의원,
- 장 소 : 스트라스 프라자 등 한인중심타운
- 내 용 : 교민격려

		
한인타운방문	교포상점방문	한인교포격려

<골드코스트 호주군한국전참전비제막식 및 보은행사>

○ 호주군한국전 참전기념비제막식 【 2011. 8. 20(토)09:30】

- 참석대상 : 퀸즈랜드주수상. 보훈처관계자, 가평부군수
참전용사, 시관계자, 언론인등 700여명
- 장소 : 골드코스트캐스캐이드가든
- 내용 : 제막식참석. 헌화



부군수 참전비제막행사참석



퀸즈랜드주수상과 총영사



부군수와 의원



가평기념석



헌화



군악대

○ 호주군한국전 참전용사보은행사 【 2011. 8. 20(토)12:00】

- 참석대상 : 보훈처관계자, 시드니총영사,가평부군수,
참전용사, 골드코스트시관계자, 교포, 언론인등 700여명
- 장소 : 엘버트워터웨이커뮤니티센타
- 내용 : 축하 및 감사패수상



부군수축사



호주군재향군인회장 감사패증정



보은행사공연팀과 함께

○ 시드니한국전참전비참배 및 가평스트리트 방문

【 20011. 8. 24(수) 10:00】

- 장 소 : 시드니무어파크와 가평스트리트,
- 내 용 : 참배 및 방문,

		
무어파크한국전참전비	한국전참전비 참배	가평스트리트입구

< 붙임 >

1. 자매결연 협정서 각 1부(한글, 영문)
2. 국내언론보도 자료
3. 호주 언론보도 자료
4. 가평군수 자매결연 체결 기념사 각 1부(한글, 영문)
5. 스트라스필드시장 자매결연 체결 환영사 각1부(영문, 한글)
6. 시드니 총영사 자매결연 체결 축하 각1부(영문, 한글)
7. 골드코스트 한국전 참전비 건립 제막식 축하 각1부(한글 영문)

《자매결연협정서》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스트라스필드시

자매결연협정서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스트라스필드시는 (이하 양도시라 칭한다)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을 통해 양 도시는 자매도시 관계를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1. 양도시는 행정, 교육, 문화, 관광 등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한다
2. 양도시는 공무원, 학생, 민간 근로자 교환을 포함한 양도시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양도시는 상호간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의 생산·판매를 협력 지원 한다
4. 양도시는 위에 언급된 분야 외에도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상호간 사전 동의 하에 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
5. 본 협정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양도시는 국문과 영문 2개의 협정서를 보관하며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1년 8월 22일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수
이 진 용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스트라스필드시장
시알 토니 마룬



Sisterhood Relationship Agreement between

Strathfield Council, NSW, Australia
and
Gapyeong County, Gyeonggido, Korea

Both parties, Strathfield Council, NSW, Australia and Gapyeong County, Gyeonggido, Korea agree to establish a sisterhood relationship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bring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to each city. Through this agreement, both cities will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aim of undertaking the following –

1. Both parties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s in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culture, tourism, etc;
2. Both parties facilitate exchange programs between both cities, including exchange of public officials, students and employees of local businesses;
3. Both parties cooperate and support a production and selling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manufacturing products;
4. Both parties may cooperate in the fields not mentioned above in order to carry out development in common. A concrete business plan is subject to a prior consent of both parties.
5. This agreement is written in Korean and English. Both parties keep both copies and the agreement is effective as soon as this agreement is signed.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Tony Maroun".

Cr. Tony Maroun

*Mayor of Strathfield Council
New South Wales , Australia*

22 August 2011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appearing to read "Jinyong Lee".

Jinyong Lee

*Mayor of Gapyeong County
Gyeonggido, Korea*

22 August 2011

《국내 언론보도 자료》

경기일보 2011년 08월 25일 (목) 12면 1면

한국전 혈맹과 특별한 자매결연

기평군-호주 스트라스필드시, 문화·관광 등 정보공유

기평군이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군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시 및 스트라스필드시를 방문, 일일 스트라스필드시 대표에서 박수를 두문수를 비롯해 스트라스필드시장 및 양 도시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양 도시는 행정·교육·문화·관광 분야의 국제교류 추진을 비롯해 공무원·학생·민간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동발전 방향 등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군의 해외 자매결연은 미국 유다주 시다스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 동맹으로서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과학자원의 영토공유 및 반석마침을 국제교류 지원에서 이뤄졌다.

2011-08-25 09:07:00



전을 교환하기로 했다.

군의 해외 자매결연은 미국 유다주 시다스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 동맹으로서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과학자원의 영토공유 및 반석마침을 국제교류 지원에서 이뤄졌다.

2011-08-25 09:07:00

경인일보 2011년 08월 25일 (목) 10면 1면

기평군-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자매결연

기평군은 지난 22일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역에서 박수영 부군수, 도덕 파문 시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서는 ▲행정·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학생·민간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상호간 사선 동의된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시 및 스트라스필드시를 방문중인 기평군 박수영 부군수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 및 교역에 따른 조성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양인호후연대 기평군대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2011-08-25 09:07:00



기평군-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자매결연

기평군은 지난 22일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역에서 박수영 부군수, 도덕 파문 시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서는 ▲행정·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학생·민간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상호간 사선 동의된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시 및 스트라스필드시를 방문중인 기평군 박수영 부군수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 및 교역에 따른 조성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양인호후연대 기평군대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2011-08-25 09:07:00

수도권일보 2011년 08월 25일 (목) 02면 1면

기평군-호주 스트라스필드 자매결연 체결 동반협력 교류 확대

기평군과 호주 스트라스필드시와 동반행동이 시작됐다.

군은 지난 22일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의회를 방문해 상호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박수영 부군수, 도덕 파문 시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정·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학생·민간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상호간 사선 동의된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군의 해외 자매결연은 미국 유다주 시다스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 동맹으로서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과학자원의 영토공유 및 반석마침을 국제교류 지원에서 이뤄졌다.

2011-08-25 09:07:00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상호간 사선 동의된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군의 해외 자매결연은 미국 유다주 시다스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 동맹으로서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과학자원의 영토공유 및 반석마침을 국제교류 지원에서 이뤄졌다.

2011-08-25 09:07:00

두 번째로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한국전 참전동맹으로서 양 도시의 행정·교육 확대 ▲국제·과학자원의 영토공유 및 반석마침을 국제교류 지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19일부터 25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시 및 스트라스필드시를 방문중인 기평군 박수영 부군수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 및 교역에 따른 조성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양인호후연대 기평군대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2011-08-25 09:07:00

일간경기 2011년 08월 25일 (목) 1면 1면

기평, 호주 스타라스필드시 의회와 결연

신항-군정 분야에 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기평군은 지난 22일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의회를 방문해 상호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박수영 부군수, 도덕 파문 시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정·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학생·민간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상호간 사선 동의된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군의 해외 자매결연은 미국 유다주 시다스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참전 동맹으로서 친선교류를 확대하고 국제·과학자원의 영토공유 및 반석마침을 국제교류 지원에서 이뤄졌다.

2011-08-25 09:07:00

신항-군정 분야에 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기평군은 지난 22일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의회를 방문해 상호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박수영 부군수, 도덕 파문 시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정·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학생·민간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상호간 사선 동의된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2011-08-25 09:07:00

신항-군정 분야에 교류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기평군은 지난 22일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의회를 방문해 상호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박수영 부군수, 도덕 파문 시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정·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있어 국제교류 추진 ▲공무원·학생·민간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필요하다고 상호간 사선 동의된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매결연 협정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 우의를 다졌다.

2011-08-25 09:07:00

한국-호주 행정·교육등 교류 '한뜻'

가평군-스트라스필드시 자매결연 행사

▶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다. 그러나 한반도는 미·소 양국의 군정하에 놓였다. 미·소 양국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각각의 군정청을 수립했다. 미·소 양국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각각의 군정청을 수립했다.

군은 2001. 8월 스포츠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삼호 고구려아리 문화 및 관광발전을 위한 지리산반세력식을 가졌다. 24일 밝혔다.

배경적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곤 한다. 비록 스포츠인도 인간인 것이 사실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주요인사가 아니라 ▲영양·교육·문화·관습 분야에 있어 국외교포 특이 ▲강박관, 미신·집착·무능이 교포 프로그램에 반영된 것은 문화적 차이 때문. 의견을 교환하고 자라날 것임을 밝힌다.

이날 부녀 박물관 스페셜리스트
시장은 "정신건강을 중요으로
관심해주고 계신데 감사하며 실질
혜택을 간여해 공공병원을 이력하
는 것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다"

한인 **김영준**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미국 유학후 재귀자에 대해 호우 스페리얼리스트라 부르는 민족적 자제심을 넘어서 ▲한국인 해외영웅으로서 공화국 헌정 100주와 ▲국제 평화와 공동체적 정통성을 및 변화시킨 김 양호 열대 신 ▲어려서부터 옛 동양에서 온 미국인인 열대사관 장교 등을 보며 국제교류에서부터 영감을 얻었다.

三、體裁

지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호주에 방문한 이 **박정호** 박사는 박정호 "한국-호주 친선 기념회" 회장 및 호주에 거주하는 **박정호** 박사의 **이** 함가라고 판정 조수연의 **이** 함가 박사의 부대응을 거 러왔으므로 양 모씨만 수석과 대 정다

또한 시·군·구 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견학하는 등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 협력체도 구성했다.

스트리츠월드지는 호주 시드니를 이루는 사회 하나를 인구가 3만 100명에 한해 교민이 10만명도 거주하고 있으며, 방송·출판업과 교육서비스업이 유망한 분야로 일변과 있다.

☎-고성철 기자 xcs@nmbu.co.kr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

신아일보

가평-호주 스트라스필드시, 동반협력 시작

RECEIVED: 25 SEP 1993; 10 OCT 1993
ACCEPTED: 10 OCT 1993

스트리스필드시 의회서 공동발전 지매결연 체결

[illegible][illegible]

1992年12月15日

[illegible]

로남 10월 4일 5월 20일 2002

일본고교생의 1인당 스마트폰 보유율은 90%로, 한국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또 1인당 스마트폰 보유율은 90%로, 한국보다 10%포인트 높았다. 또 1인당 스마트폰 보유율은 90%로, 한국보다 10%포인트 높았다.

coldest 10° averages month

▶이종환일보

가평, 호주 스트라스필드市와 자매결연

2001 年第 12 期 第 12 页

한정은 50여 년의 스포츠인생에서
외국 경험과 국내 생활을 모두
포함한 200여 년의 스포츠인생을
공로로 인정받아 상훈 표창장을
받았다. 그는 "스포츠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994년 4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법」을 제정하고,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4년 5월 10일 개관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4년 5월 10일 개관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94년 5월 10일 개관하였다.

현을 이끄는 젊은 기력과 뜨거운
기열을 갖고 있다.

[illegible]

이와 1991년의 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91년 1월 26일 제정)은 1977년 제정된 헌법에 비해 **국민주권**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무엇보다 공화국의 국호를 '사회주의'로 명시하고 공산주의를 **국교**로 제정하며, **공산주의**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이 도입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02360 312-4144 (www.1111)

서훈일부

"동반협력의 시대로 나가자"

2011年12月 第12期

지역 호주 스트라스필드市와 자매결연

Figure 1. The effect of the number of iterations on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algorithm. The accuracy is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correct classifications. The number of iterations is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The accuracy is 0.85, 0.88, 0.90, 0.92, 0.94, 0.96, 0.98, 0.99, 1.00, 1.00. The accuracy is 0.85, 0.88, 0.90, 0.92, 0.94, 0.96, 0.98, 0.99, 1.00, 1.00.

최근 지난 2011년 3월 스페인 스텝 3사 외화환 인증제 선포, 노유환씨 회사 및 공동창업자 부인 이재숙씨인정, 김희정씨 등이다.

[illegible]

본 실험은 3개 집단 중 하나를 배제

한편 본지 11월 28일자 1면의 기사를 보면,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11월 28일, 29일 두일간 교육·영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1월을 '11월의 달'로 선포하고, '11월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부산·대구·광주·대전·서울에서 또
국유이도지(이대)에 바와 조류 스프
권스필트(이대)에 두 번으로 지대일
로 열을 보며 ▲한국인 학계(이대)
고려(이대)의 철학 ▲한국인 철학 ▲국
회(이대)의 철학 ▲한국인 철학 ▲국

법률사무소(이하 ▲)는 주주 및
고유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최소 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과 상담을 제공한다.

그는 10월부터 3개월간 호주 풀
드레스코프 및 스페인산마리
발루에의 **출입**을 중단한 한편
영국령 케르마델라 및 코르세아
조각 지대를 해 공습하고 반포
주변에 **관망**하기를 병행해 주다
를 계속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1회 전국 1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100대 도시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한 2.5%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1.5%포인트 증가한 1.5%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증가한 2.5%로 나타났다.

1990-2011, <http://www.inec.org>

± 0.01

스트라스필드-가평군 '혈맹'에서 '혈육'으로

BY EDIT- 26/08/2011

POSTED IN: 교민, 헤드라인

호주동아일보를 페이스북에서 만나십시오.

호주동아일보 @
facebook.



자매결연식 체결, "다민족 협력 상징되겠다"

스트라스필드 카운슬과 경기도 가평군이 22일 스트라스필드 도서관에서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가평군은 호주에서 한국전 참전 당시 호주 한국전 참전 군들의 희생이 컸던 격전지로 기억되는 곳으로 지난 4월말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때 '가평전투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토니 마룬 스트라스필드 시장(사진 앞줄 왼쪽)과 배수용 가평 부군수(오른쪽)는 대표로 자매결연 증서에 상호 서명을 하고 악수를 나눴다. 두 자치 단체 대표들은 “오늘의 자매결연이 있기까지 권기범 시의원(뒷줄 가운데)의 활약이 컸다”고 치하했다.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는 지난 8일 가평군과의 자매결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매결연식에 참석한 김진수 총영사는 “한호수교 50주년을 맞이해 이 같은 자매결연이 성사됨을 의미 있게 여기고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민주주의, 경제, 무역, 국제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호 관계 발전사에 대해 말하고 이번 자매결연으로 더 이상 가평군이 전장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우정의 이름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룬 시장은 “스트라스필드는 다민족, 교육, 교통의 요충지로 한인밀집지역이자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다문화주의의 중심지로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다민족 협력의 상징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한인들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혜택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이후 공무원, 학생, 사업인들의 상호 교류가 활발해져 향후 더욱 관계가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배수용 가평 부군수는 “양 지역간의 교육, 문화, 행정, 관광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펼칠 것이다. 스트라스필드 봄 축제에 가평군이 참가하고 우리의 자랑거리인 재즈 음악의 축제 ‘자라섬 페스티벌’로 스트라스필드 지역인들을 초청하겠다. 또한 가평군 학생들의 어학연수, 스트라스필드 학생들의 호주군 참전비 순례 등을 추진하여 서로 이해하고 친선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군의 대표단은 앞서 20일 열렸던 퀸슬랜드 참전기념비 제막식에도 참석했다. 자매결연식이 끝나고 가평군은 지역 예술인이 만든 큰 도자기 접시를, 스트라스필드는 유서 깊은 타운홀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각각 선물했다.

이은형 기자 edit@hojudonga.com

스트라스필드시, 가평군과 자매결연 맺어



22일(월) 스트라스필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배수용 가평군 부군수 및 군청 간부들이 직접 호주를 방문해 협약식에 참석했으며, 김진수 주 시드니 총영사, 서승무 부총영사, 권기범 스트라스필드 시의원 및 한인 동포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토니 마론 스트라스필드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은 스트라스필드 지역사회의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이는 스트라스필드시가 다양성에 대해 환영·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공공연히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매결연을 통해 스트라스필드 시는 가평군과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며, 이것이 문화·경제 등의 여러 혜택을 양 시에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뿐만아니라 이번 결연식을 통해 공공 영역, 학생, 사업자 간 교류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수용 부군수는 "스트라스필드가 125년 전통의 자치와 교육의 도시가 돼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문화·관광·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문화와 관광 교류에 있어서 스트라스필드시의 '스프링 페어 푸드 페스티벌'과 가평군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지금 당장이라도 교류가 가능하다"면서 더욱 큰 기대를 내비쳤다.

김진추 총영사는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이 스트라스필드 지역 및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수해로 인해 가평군이 큰 피해를 입은 관계로 이진용 군수는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스트라스필드시-가평군 자매결연

교류, 협력 확대 등 협정서 교환

시드니의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시와 한국의 경기도 가평군이 22일(월) 스트라스필드시 도서관에서 상호 교류협력 확대 및 공동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토니 마론 스트라스필드시장과 이집을 가평군수가 서명한 자매결연협정서를 교환했다. 체결식에는 군수를 대리해 배수용 가평부군수가 참석했다.

체결식에는 토니 마론 스트라스필드시장, 린기범 시의원, 윤석철 가평군의원 의원 등 양도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정·교육·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제교류 추진, 공동발전, 학생·민간 부문의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사전 동의된 교류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내빈으로 김진수 총영사와 서승우 부총영사, 이용자 호주한인복지회장, 이경자 복지회고문, 박은희 전 시드니한인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도시 자매결연에는 스트라스필드시장을 역임한 린기범 시의원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총영사의 축하 후마론 시장을 환영사에서 "가평방문단을 중심으로 환영한다"며 "두 도시간 교육·행정·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공동발전을 이뤄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답사에서 배 부군수는 가평군 자라섬 일대에서 열리는 '자라섬 국제제즈 페스티벌'을 설명하며 양 도시간 문화·관광·교육의 교류 증진이 활발해 지기를 희망했다. 10월 1~3일 열리는 이 축제는 올해로 6회째다.

20일 멜보른시에서 개최된 린즈링드 한국전 참전 기념비 제막식에 이어 스트라스필드시를 방문한 가평방문단은 시드니의 호주 육군 기념 3대대를 방문해 부대원을 격려했다.

가평군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미국 워싱턴주 시다시에 이어 호주 NSW주 스트라스필드시와 두 번째로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한국전 참전동맹으로서 입



토니 마론 시장(왼쪽)과 배수용 부군수가 22일 자매결연협정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눴다.

도적 친선 교류 확대, 국제·관광자원의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 등 상호 협력 강화,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등 교육·관광 협력사업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과 춘천의 중간에 위치한 인구 6만 여명의 가평은 수려한 자연 환경 조건을 갖춘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 도시

로 발전하고 있다. 시드니의 교통 요충지인 스트라스필드시는 인구 8만 6500명으로 한국 교민이 10%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한인협회가 있는 상권이 형성돼 있고 명문 사립 학교들이 많은 지역이다.

(고학순 기자 editor@koreatimes.com.au)

《가평군수 자매결연 체결 기념사-2011.08.22》

존경하는 토니 마룬시장님,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 김진수 총영사님,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의원님, 데이비드 백하우스 행정사무총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먼저 짧은 일정통보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대표단의 방문을 수락하고 오늘 두도시의 자매결연을 맺도록 자매결연 조인식을 준비하여 주신 토니 마룬 시장님과, 시드니 한국 총영사관 김진수 총영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은 금년 7월에 100년만의 큰 홍수를 당해 인명과 상당한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스트라스필드 시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민들이 걱정과 위로의 뜻을 보내주신것에 대해 가평군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한호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양도시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한호관계에 있어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지않을까 전망해봅니다.

125년 전통의 스트라스필드 자치시는 교통과 교육 의 도시이며

호주에서 한국교민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자치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에코피아-풍요로운 생태도시-입니다. 또한 교육과 환경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는 교육과 관광

의 도시입니다. 또한 가평은 호주군이 한국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가평전투의 현장으로서 호주군 참전용사들이 순례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러한 공통점과 인연을 지닌 두도시가 자매결연을 맺게된 것을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스트라스필드자치시와 함께 경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토니 마룬시장님, 김진수 총여사님 그리고 귀빈여러분

자매결연 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저는 앞으로 교육, 문화, 관광, 행정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라스필드 스프링스페어 음식축제와 가평군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의 대표단 상호 방문 그리고 가평군 청소년들의 스트라스필드 어학연수와 스트라스필드 청소년들의 가평 호주군 참전비순례는 지금 당장이라도 상호 교류가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특히 이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이해와 친선, 협력을 통하여 양도시가 공동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표단에 따뜻한 환영과 멋진 자매결연조인식을 준비해주신 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시드니 한국 총여사관 김진수 총여사님과 관계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가평군수 이진용대독

Respected Mayor of Strathfield Council, Tony Maroun, Councilor Keith Kwon, General Manager David Black and staff , Consul General in the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Jinsoo Kim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a sincere appreciation to the Mayor of Strathfield Council, Tony Maroun and councilors for allowing our visit to Strathfield Council and preparing a ceremony of Sister City Agreementt and inviting this ceremony for us in spite of our short notice of changed delegation and itinerary.

I know that Strathfield Council is a transportation and education city which maintains a history and tradition of 125 years. There is a strong Korean community in Strathfield Council, the largest among 38 local government areas in Sydney. Hereupon, our Gapyeong County is an Ecopia- a rich and comfortable Eco-Ecology City- with harmony of nature and culture. Also Gapyeong County has focused on educ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and is an education and tourism city. Also Gapyeong has the Gapyeong Battle field where Australian soldiers fought bravely during the Korean War. Gapyeong is a pilgrimage city for the Australian Korean war veterans. Therefore, I think that a Sister City Agreement between Gapyeong County and Strathfield council which have a lot in common and a relationship from the Korean war is something valuable and meaningful. On this,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our Sister City Arrangement with Strathfield Council.

Respected Mayor of Strathfield Council, Tony Maroun, Councilor Keith Kwon, General Manager David Black and staff

As mentioned on a Sister City Arrangement, I expect that there will be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s in the areas of education, culture, tourism and administration. Especially, I think that both cities' delegations can exchange visits to the Spring Fair with the

inaugural Taste int'l food festival in Strathfield Council and Jarasu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in Gapyeong County.

Also I think that Gapyeong County can dispatch a youth delegation to Strathfield Council for ESL and Strathfield Council can dispatch a youth delegation to the Gapyeong Battle field in return during the vacation period and can be possible immediately.

I hope that this Sister City Arrangement becomes an opportunity for the mutual development of both cities through a reciprocal understanding, an amicable friendship and a cooper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the Mayor of Strathfield Council, Tony Maroun Councilors and staff for your warm welcome and a luxurious dinner.

Thank you very much

Jinyong Lee

Mayor of Gapyeong County

(Reading by Deputy Mayor of Gapyeong County)

《스트라스필드시장 자매결연 체결 환영사-2011.08.22》

Thank you David and good morning to all.

I would like to start by welcoming you all to Strathfield and thanking you for being here.

It is wonderful to have Mr Soonyong Bai - Deputy Mayor of Gapyeong County, along with others from Gapyeong, Korean Consul-General Mr Jin Soo Kim and members of the Strathfield and Australian-Korean community here today.

Strathfield is a unique community in Sydney's inner-western suburbs that has a large population of Korean people, as well as people from a number of nations around the world.

Strathfield Council are very proud of our close connection with the community, with our parks and open spaces and our heritage areas which serve to remind us of the great history of the area.

Strathfield Council and myself as Mayor also take great pride in our relationships with the Korean community both here in Strathfield as well as the Korean cultural groups based in Sydney and with Korean leaders.

2011 is the year of friendship to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Australia and

Korea. I know our representatives from Gapyeong

attended the opening of the Queensland Korean War

Memorial on the Gold Coast over the weekend.

The significance of this memorial, along with the

celebration of the friendship between our nations is one

which plays a very important part in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Strathfield and in the Sister City agreement we are here to sign today.

By signing this Sister City agreement, Strathfield Council agree to establish a relationship to promote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bring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to each city.

I look forward to Strathfield and Gapyeong creating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exchanges of public officials, students and employees of local businesses among other things.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here today who has made this moment possible and thank you to the people of Gapyeong for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this Sister City relationship.

It is one which I am very proud to see come to life and one which I know will serve both the people of Strathfield and Gapyeong well for many years to come.

May today mark an official acceptance of a truth already widely recognised here in Strathfield our diversity is embraced and is worth celebrating.

Thank you

《스트라스필드시장 자매결연환영사》

고마워요 데이비드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인은 먼저 스트라스필드시를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배수용부군수님과 가평대표단, 김진수시드니한국총영사님과 스트라스필드시민 호주한인사회여러분들을 뵙게되어 무척 기쁩니다. 스트라스필드시는 전세계각국, 국민들 뿐만아니라 한국교포들이 가장많이 사는 시드니 내륙서부교외의 아주 독특한 지역사회입니다.

스트라스필드시는 유서깊은 역사를 상기시켜주는 많은 공원과, 확트인 공터, 그리고 전통을지닌 많은명소들과 공동체들에 아주 쉽고 가까이 접할수있다는 것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트라스필드시와 시장인 본인은 시드니에 삶의기반을 두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한인들과 스트라스필시에 기반을 둔 한인공동체 양쪽모두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또한 커다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2011년도는 한호수교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우정의 해입니다. 본인은 가평군대표단이 지난주말 골드코스트에서 개최된 퀸즈랜드호주군한국전참잔기념비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오셨다는 것을 잘알고있습니다. 이참전비의 중요성은 두나라사이의 우호친선관계를 증진해줄뿐아니라 스트라스필드한인사회 또 오늘 우리가 서명하려고 하는 자매결연협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것입니다. 이 자매결연협약서에 서명하므로써 스트라스필드시는 서로에게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혜택을 줄수있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앞으로 공무원, 학생, 민간근로자교환근무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오늘 이순간이 있기까지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자

매결연 체결을위해 전념하신 가평군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것중의 하나는 앞으로 이자매결연이 활기를 띠고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되는 것이고 또한가지 확신할수있는 것은 이자매결연이 앞으로 오랫동안 가평군과 스트라스필드시 양도시민들에게 중요한 교류의 역할을 할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양성! 스트라스필드시에서는 이미 이러한 다양성이 수용되고 축복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은 우리시가 이중요한 가치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드니총영사 자매결연 체결 축하-2011.08. 22》
I thank Councillor Tony Maroun, Mayor of Strathfield
and all the councillors
including Mr 기범 권
for welcoming us.
I warmly welcome 수용 배, Vice Mayor of Gapyeong County
and his delegation.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oday's ceremony is all the more meaningful
in that the sister relations is being concluded in the year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ustralia.
Indeed.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grown. And I dare say that this friendship had germinated
on the battlefields of Gapyeong 60 years ago.

That is why
Prime Minister Julia Gillard visited Gapyeong
on the 60th anniversary of the battle
last April.

The bravery and prowess of Australian soldiers
are well remembered and praised after all the years.

Their role was vital
in securing the survival of a country
that was to become
world's leading economy with thriving democracy and
Australia's 4th largest trading partner.

In fact
I have just come back from
an unveiling ceremony of a Korean War Memorial
in Gold Coast last Saturday
attended by The Hon Anna Bligh the Premier of
Queensland.

Stones were brought from Gapyeong for the memorial,
from the very soil your soldiers had shed blood.

Gapyeong has grown into a modern yet nature-preserving
city.

It also obtained a strong reputation for education
with its resilient and industrious people.

It is now reaching out to the world
to make friends and
to seek cooperation that will bring greater benefits.
And Strathfield is definitely its natural partner.

Strathfield is the centre of the multi-cultural spirit
that makes Australia great

and it is also an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hub,

It has the largest Korean population
among the 38 councils in Sydney
and also has a Korean councillor.

The participation in politics by new generation of new
Australians
is a symbol of successful multiculturalism.

Koreans
through hard work, strong education, and warm hearts,
are doing their part in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and making build a greater country.

I once again congratulate this joyous occasion
I believe the two cities have much to offer one another.

Gapyeong
once known to Australians as just a fierce battlefield,
shall now be re-recognised as the cradle of our friendship
and a heartily friend of Strathfield.

Thank you

《김진수총영사축사》
먼저 우리를 환영해준 토니마룬 스트라스필드 시장님, 권기범
의원을 포함한 시의회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평군 배수용부군수와 대표단에게도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귀빈여러분 그리고 신사 숙녀여러분!
오늘의 자매결연 조인식이 보다더 큰의미를 지니는 것은 한
호수교 50주년 뜻깊은 해에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

다. 실로 한호 두나라 사이에는 우호친선관계가 계속해서 커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호 우호친선의 관계가 60년 전 가평전투에서 싹트기 시작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4월 가평전투 60주년 에 줄리아드 길라드 호주 총리가 가평을 방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용감하고 씩씩했던 참전호주군인들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칭찬받아야 마땅 할 것입니다. 한국전 참전 호주군은 호주의 네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나라(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는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실저는 지난 주말 골드코스트에서 더혼 안나블리 퀸즈랜드주수상도 참석한 퀸즈랜드호주군 한국전 참전비건립제막식행사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가평대표단은 호주 여러분의 군인들이 피를흘린 그전투지역에서 참전비건립을 위해 가평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평군의 발빠르게 현대화의 추세에 맞춰 발전해가고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연이 잘보전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성품이 명랑쾌활하고 근면한 가평군민들은 교육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전국적 명성을 얻고있습니다. 이제 그 가평군민들이 보다더 원대한 포부를 갖고 보다 더 큰혜택을 얻고자 세계에 손을 내밀어 친구를 사귀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스트라스필드는 분명 가평군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것입니다.

스트라스필드는 위대한 호주를 만드는 다문화사회중심에 있으며 또한 교육과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스트라스필드시는 시드니 38개자치시중에서 한국교민이 가장많이 사는 자치시이며 또한 한국교민출신 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호주에 있어 신세대의 정치참여는 성공적 다문화사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한국인은 아주열심히 일하고 교육열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들이속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시한번 이경사스러운 조인식을 축하드리고 두 도시가 서로 또다른 혜택을 제공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가평!

한때 호주인에게 아주 참혹한 전장으로만 기억되던가평이 이제 우정의요람으로 재인식되고 스트라스필드시의 진실된 친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수 골드코스트 한국전참전비건립제막식축사-2011.08. 20》

존경하는 퀸즈랜드주 호주군 한국전재향군인회 회장 그리고 회원 및 가족여러분, 골드코스트 South Port RSL 회장, 회원 및 가족여러분, 론 클락

골드코스트시장님, 박승춘한국보훈처장님, 김진수 주시드니 총영사님, 한국전 참전비 건 퀸즈랜드한국교민여러분 그리고 귀빈여러분!

본인은 먼저 오늘 퀸즈랜드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 캐스캐이드공원내의 코리아가든 개관식과 참전용사 보은 행사의 하나인 ‘평화의 찬양’ 공연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런 뜻 깊은 행사에 초청해주신 안종철 퀸즈랜드 한국전 참전비 건립위원회 회장과 모리피어스 퀸즈랜드 한국전 참전자문위원장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평군은 한국전의 폐허속에서 에코피아 가평의 비전 아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다른도시의 거주민들이 우리군에 이주해 살고 싶어하는 풍요로운 안락한 생태도시(Eco-Economy City)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평군민들은 한국전에서 보여준 왕립호주연대 3대대 대원 및 모든 호주군인들의 값진희생과 숭고한 군인정신을 결코 잊지않을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에 대한 조그만 보답으로 모든 가평군민의 뜻을 모아 가평전투지역의 자연석 3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원히 잊지 않으리!> 라는 비문이 새겨진 이 가평석은 캐스캐이드 가든 내에 있는 코리아 가든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인은 이가평석이 왕립호주연대 3대대 원들뿐만 아니라 한국전 참전 모든 호주군 재향군인들에게 위안과 한국전의 추억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본인은 여러분이 가평전투를 기념하기위해 지난 60년동안 매년 4월 24일 한군전 참전용사들이 참가하는 가평데이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부터는 가평데이행사에 가평군대표단을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퀸즈랜드 호주군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 캐스캐이드 코리아가든 개관식과 한국전 참전용사 보은행사를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이행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8. 20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수 이진용 (부군수대독)

Respected President of the Queensland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veterans and their families, President of Southport RSL Club, members and their families, Mayor of Gold Coast City, Ron Clarke,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er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ungchoon Park,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Consul General, Jinsoo Kim, , Korean Residents in Queensland and Distinguished Guests.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unveiling ceremony for the Queensland Korean War Memorial Monument, opening of the Korean Garden in Cascade Park and a performance of 'Celebration of Peace' one of the gratitude events. Also I would like to thank the president of the Australian Korean War Memorial Queensland Ltd , Joseph Ahn and Project manager, Maurie Pears for inviting me to this ceremony.

Our Gapyeong County has developed remarkably in many fields under a vision of Ecopia thanks to your warm concern and strong support so out of the Korean War's ruins. We are changing into a rich and comfortable eco-economy city, a place where many

people from other cities want to move and live in. All citizens of Gapyeong County have never forgotten, and will never forget, the invaluable sacrifices and noble soldier spirit shown by Australian Soldiers including the 3rd Battalion Royal Australian Regiment during the Korean War. On this, I have brought three natural stones from the Gapyeong Battle field as a small reward for the Australian Korean War Veterans. Words of "Lest We Forget" was carved on the gravestone and these Gapyeong stones have been set up in a Korean Garden in Cascade Park. I hope these Gapyeong Stones will be a comfort and a symbol of remembrance of the Korean War to all Queensland Korean War veterans as well as veterans of the 3rd battalion in RAR.

Also, I have heard that a ceremony of 'Gapyeong day' has been held in Gold Coast City on 24th April every year for 60 years in honour of the Gapyeong Battle. On this, I thank you for carrying out

'Gapyeong Day' and will dispatch a delegation from Gapyeong County on this day from next year.

Today I would like to express my congratulations on the unveiling ceremony of the Queensland Korean War Memorial, opening of the Korean Garden in Cascade Park and a performance of 'Celebration of Peace' one of the gratitude events once more and thank you for joining this significant ceremony and wish all distinguished guests good health and happiness.

Thank you very much

Jinyong Lee

Mayor of Gapyeong County, Korea

(Reading by Deputy Mayor of Gapyeong)